영어어문교육 *제24권 4호* 2018년 겨울

체계적 문헌분석을 통한 고교-대학 연계 영어교육 연구*

이 온 순**
(동아대학교)
박 지 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장 형 지****
(선문대학교)

Lee, On-Soon, Park, Jiseon & Chang, Hyung-ji (2018). A study on high school and college English education program articulation: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4), 149-167.

Despite increasing interest in English programs, few studies have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English program articulation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The current study, therefore, explores the importance of such articulated English programs for Korean college English education, by conducting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the findings of 67 relevant studies. Furthermore,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findings by using an internet-based text-mining program in terms of frequent expressions in the abstracts collected.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e. First, English program articulation between high schools and colleges is critical. Second, it is important to tak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articulated high school and college programs.

[college English education/high school English education/articulation/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대학영어교육/고교영어교육/연계/체계적 문헌고찰]

I. 서론

국제사회에서 영어 의사소통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어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 영어교육과정 개선 및 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영어교육과정부터 대학교 교양영어교육과정에

* 이 논문은 2018년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 (UP) 정책연구(위탁)과제 (표준교육과정 영작문 개정연구)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대한 문제점들은 매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고교 영어교육과정과 대학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어교육과정의 연계성 결여가 영어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방해요인이기도 하다. 예컨대, 2011년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보듯이, 교실내에서 말하기 및 쓰기 수행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표현기능(말하기와 쓰기) 의 향상에 관련된 학습활동이 주요하다. 반면에 대학교내에서 현행된 교양영어 교과목은 표현기능 (말하기와 쓰기)보다 이해기능(읽기와 듣기)에 집중된 수업들이 비교적 많이 개설되었다(성명희, 현태덕, 이지연, 장형지, 2011). 고등학교와 대학교 영어교육과정의 연계성이 약해짐에 따라, 우수한 고등학생들의 잠재성을 충분히 함양시키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08년 이후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으로서 대학과목선이수제를 (University-level Program, UP)[1] 일부 교과목(수학, 통계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 환경과학, 과학사, 컴퓨터과학, 국어, 영어, 사회)에 점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UP 교과목의 표준교육과정 중, 영작문은 다양한 주제의 영어지문에 담긴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개발하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그러나, 영어학습자들의 요구 반영과 그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며, 새로운 영어 교과과정 정책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부터 대학교 영어교육과정까지 연계성을 가진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고교와 대학의 영어 교육과정의 격차를 감소하여,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 함양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EFL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교 영어교육과 대학 영어교육을 연계하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에 따른 현행된 대학이수선수제 영작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Yang과 Lau(2003)는 홍콩의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고교와 대학수준의 영어수업에 대한 학습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표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진행한 고교영어수업과 비교적 자율적인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대학영어수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영어교과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수능과 같이, 홍콩에서 진행되는 진학을 위한 영어시험 준비가 고교영어 수업의 목표였다면, 대학에서는 진로, 직업과 관련된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대학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도 홍콩과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년의 영어교육이 진행되고, 대학 입학 후에는 각 대학에서, 교양영어나 대학영어 등의 이름으로 대학 자체의 교양영어

[1]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이란 고등학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대학 진학 후 이수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고교와 대학 간 학습 연계프로그램이다. 특정 학문 영역에 적성과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수준의 심화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이다." (http://up.kcue.or.kr/kcuehu_1.jsp)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1학년 신입생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한국의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영어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연구를 보면, 하명애(2018)는 수능중심의 독해와 문법위주의 고교영어 수업과는 다른 대학의 영어수업은 학습자의 참여가 높고, 지속적인 영어수업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교영어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영어교과의 핵심역량을 제시하여, 학습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활동지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a). 한국에서의 대학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고등학교의 총 9년의 과정을 통해 향상시킨 영어능력을 기반으로 전공영역에서의 의사소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교과목으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2학점에서 4학점 정도의 필수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읽기, 문법 중심의 영어수업이 블랜디드 학습, 멀티미디어 기반 학습 등의 의사소통중심의 교육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김성혜와 임자연(2013)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초, 중고교의 영어수업 보다는 대학의 영어 수업이 글로벌화 한 시대상을 반영한 영어교육으로의 개혁이 용이하다고 한다. 김성중과 정은(2016)은 대학생들의 영어수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용적인 영어말하기 능력, 직업과 학문적인 영역에서 도움이 되는 영어학습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총 9년간의 공교육을 통한 영어수업을 이수하고, 대학에서 영어수업을 진행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영어와 대학영어의 교육의 차이에 따른 격차를 감소하고,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영어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영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2] 통한, 고교영어교육과 대학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 문헌을 수집하여 연구주제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고교와 대학의 영어교육관련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어교육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고교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여, 주요한 연구분야가 무엇인지 논의한다.

두 번째, 대학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고찰하여, 주된 연구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세 번째, 고교와 대학 영어교육 관련된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교와 대학영어교육과정의 연계과정의 중요성을 밝혀낸다. 이를 토대로 고교-대학 연계 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계적 문헌 분석(Systematic Review)은 선행연구 문헌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분류, 정리하는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방법을 적용한다. 정부일과 현병환 (2018)에 따르면, 체계적 문헌 고찰은 연구대상 문헌의 검색, 선정, 분석, 결과의 통합절차와 기준을 사전에 맞는 모든 연구들을 수집, 분석하여,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결과들을 통합하여 연구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방법이라 정의하였다 (81:8-12).

II. 한국의 고교 –대학 영어교육 과정

한국은 EFL 상황에서 공교육을 통해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취업과 유학, 학교의 내신, 입시 등과 관련된 사회적 외적변인인들의 요구가 높아, 영어에 대한 학습열기가 높고, 공교육뿐 아니라, 사교육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97년부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다양한 학자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초, 중고교의 영어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는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남희와 정미애(2017)는 고교와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에서 있어서 학습자의 탈 동기화(demotivation)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한 결과, 영어학습을 통한 실패감, 학습자료와 학습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고교시절의 탈동기화 현상이 대학 시절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영어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입시중심의 영어교육방법론 때문으로 나타났다(하명애, 2014). 고교영어수업에서 입시위주의 영어수업뿐 아니라, 수행평가에 관한 문제점 제기도 있었는데, 박태준(2016)은 고교영어의 말하기 수행평가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만족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특히 교수자의 경우 원어민 수준의 영어수업진행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영어말하기 수행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송대연(2007)은 고교영어 교과목에 대한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말하기 평가의 명확한 채점근거가 부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방식, 지나친 점수위주의 평가방식과 문법, 어휘중심의 평가가 학습자의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년의 영어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도와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기 보다는 입시위주의 수업내용과 점수, 결과중심의 부적절한 수행평가, 문법, 어휘중심의 수업이 영어학습에 대한 탈동기화 현상을 낳고 있는 현실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교육 강화와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윤찬미 & 이진화, 2018). 교육부(2017)의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의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한 문학, 독서, 연극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총 6가지 역량을 제시하였다.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은 교육부(2015b)에 의하면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각 역량의 정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역량 (교육부, 2015b)

핵심 역량	정의
영어의사소통 역량	일상생활 및 다양한 상황에서 영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역량
자기관리 역량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영어로 표현된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역량

4가지의 영어과 교과 역량을 기반으로 초, 중, 고교의 영어수업은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수업환경 조성을 통한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멀티미디어 자료를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자료의 개발,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 평가 등의 다양한 과정중심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한혜정 외, 2015). 그러나 2015 개정과정은 이제 막 시작된 교육과정으로 역량중심의 교과목 운영이 적절하게 진행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교양 영어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예식과 임홍미 (2005)는 국내 총 6개 대학교 (S대, K대, E대, H대, J대, B대)를 중심으로 교양영어교과목 및 교육 실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6개 대학 모두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S대와 K대는 '실용영어' 및 '대학 영어'를 개설하여, 언어의 네 가지 영역을 고르게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K대학의 실용영어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 필요 조사에 의하면, 네 가지 언어영역의 균등한 함양을 위한 통합적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였다(고명희, 2010). 또한, S대 대학 영어프로그램도,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의 통합적 영어교육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S대 학생들의 대학 영어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양현권, 2011). 대학 교양영어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통합적 영어교육프로그램의 개선책으로 통합적 영어교과목 개발 및 구체적인 교수법 및 강의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이진화(2012)와 양현권(2011)의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실제 대학의 모호한 교육 목표 "영어 능력 향상"은 교과내용과 교수법이 모호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구체적인 대학 영어 교육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사항과 더불어 학습자의 영어 의사소통역량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내어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고교, 대학 영어교육 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연구주제에 맞는 문헌을 수집하여 정량적인 비교를 실시하는 양적 연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수집한 연구자료의 내용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선험적 분석 유목 설정을 통한 1차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행한다. 이는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분석하여 연구문헌에서 제시한 결과를 통합하여, 연구질문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Big Data 분석과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높은 빈도의 표현을 (인터넷 기반 Text-mining 프로그램, http://textalyser.net/) 토대로 논의 및 제연구의 타당도(validity)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고교 영어교육과 대학 영어교육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수집 후, 연구 주제별대로 분류하여 검토하고 (교수 학습 및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 및 및 학습자 변인 등), 이를 바탕으로 고교-대학 영어 연계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고교 영어와 대학 영어와 관련된 연구문헌의 영어논문초록을 발췌하여, 최다 빈출 단어 및 표현들을 인터넷 기반의 text minin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도출한다. 그 결과에 따라 고교 영어와 대학 영어의 문헌연구들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행된 고교-대학 연계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하는데 목표로 두고 있다. 고교 및 대학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학술정보 통합서비스 사이트 (Kiss, DBpia)에서 '대학영어' '고교영어' 주제어 (key words)에 포함된 문헌들을 검색한 후, 학위논문, 해외학술지,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제외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도출한다. KCI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국내논문들만을 선별한 결과로 남은 논문들은 개별논문 초록 및 내용을 점검하여 선별한 결과 67편의 논문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3]
2) 국내 고교 및 대학의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영역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 학습자 변인 등) 별 대로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한다.
3) 관련 문헌자료들의 영어논문초록들을 인터넷 기반 text-mining 프로그램을 통해 (http://textalyser.net/) 연구결과를 도출한다.[4] 초록에서 최다 빈

[3] 익명의 심사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연구대상문헌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방법에서 연구대상 논문의 선별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4] 인터넷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지문의 총 단어와 문장수를 포함하여, 최다 빈출 단어 및 표현들의 빈도수 및 비율을 도출하였다.

출 단어 및 높은 빈도 표현을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고교-대학 연구 동향을 분석한다.

4) 결과에 따라, 현 고교-대학연계과정인 '영작문' 표준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연구대상

고교-대학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발췌한 결과 분석에 사용된 연구문헌은 총 67편의 논문이고 고교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논문 32편, 대학의 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논문 35편이다.[5]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논문으로 학술정보통합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한 자료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기 위해 자료수집의 범주를 제안하여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논의

1. 고교 및 대학 영어교육 관련문헌 내용분석

1) 고교영어 문헌연구

분석대상 연구 논문 32편의 년도 별 발표 건수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교 영어분야를 다뤄 왔던 문헌연구 주제를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5 개의 세부분야로 나눌 수 있다: 교수법 및 교수학습 (34.2%), 교육과정 분석 (25%), 교재개발 (9.3%), 영어평가 (19%), 학습자 변인 (12.5%). 이러한 분류에서 나타나듯이 고교 영어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수법 개발 및 교수학습 (34.2 %) 분야가 꾸준히 연구되었다. 특히, 영어교육과정에, 말하기·쓰기 수행평가 정책이 시행되어짐에 따라, 말하기 및 쓰기에 관련된 교수법 연구들이 최근에 수행되었다, 모바일 및 인터넷 기반으로 한 영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중심교실 내 학생들의 말하기 및 쓰기관련 수행평가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김소연, 윤지환, & 이문복, 2017; 이문복, & 주헌우, 2017).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 현행되고 있는 영어교육과정 및 정책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 태도 및 인식조사 (25 %)도 수행되었다. 이는 다소 예측된 결과이기도 하다. 2011 영어과 개정교육과정 및 영어 말하기·쓰기 수행평가와 같은 새로운 영어 교육 정책이 시행되기에, 이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인식조사 및 만족도 조사가 2011년이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5] 익명의 심사자께서 분석 문헌의 수가 작아 기술된 결과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셨으며, 이는 후속 연구의 몫으로 넘기고자 한다.

교사의 인식연구 (박지선, 장경숙, 박재은, & 백인환, 2012) 결과에 따르면, 영어 말하기·쓰기 수행평가와 영어 교과교실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엔 높은 인식도가 나타난 반면, 2011년 영어과 개정교육과정, 수능 수준별 영어 A·B형 시험, 국가 영어 능력평가시험에 관련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교육정책 실행 시, 현장 교사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영어 말하기·쓰기 수행평가 현황 및 인식 조사연구 (박태준, 2016)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 말하기 영역에 관련된 비중이 나머지 언어 영역 (듣기, 쓰기, 말하기)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현장 교사들에게 수행평가에 관련된 연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2

고교 영어관련문헌 년 도별 발표 건수와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주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
교수법	4		1	1	1	1		3		11(34.2)
교육과정		3	3			1	1			8(25)
교재개발	1				1		1			3 (9.3)
평가			3	1				2		6 (19)
학습자변인			1					2	1	4 (12.5)
총합계	5	3	8	2	2	2	2	7	1	32(100)

2010년 이후로, 교실 내 영어 말하기, 쓰기 및 읽기에 관련된 수행평가 방법 및 항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19%)를 포함하여, 고등학생들의 수업에 태도 및 동기화 영역 (12.5%)에 관련된 학습자 변인 연구도 수행되었다. 읽기 영역에 관련된 평가항목 요소로 평가문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윤영선, 2013; 최영은, & 김경한, 2012). 이런 결과에서 보듯이, 고교영어 선행연구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어떻게 영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크다. 또한 새로운 영어과 교육과정 및 정책 시행 시, 학생과 교사의 인식과 요구조사 연구를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말하기 및 쓰기에 관련된 교수법 및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다.

2) 대학영어 문헌 연구

분석대상 연구 논문 35편의 년도 별 발표 건수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 교양 영어분야를 다뤄 왔던 연구 주제를 영역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4 개의 세부분야로 나눌 수 있다: 교수법 (23.57%), 평가 (5.71%), 교육과정 (40%), 학습자 변인 (25.71%). 이러한 분류에서 나타나듯이 대학 교양영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과정 분석 및 평가에 관련된 영역에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대학 교양 영어 프로그램이 가진 문

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및 제안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어학습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을 이용한 영어 말하기와 읽기 학습 (MALL, Mobile-Assisted Language Learning)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정남숙, 2017). 또한 영어 읽기 및 어휘학습 시 교실 내 학생들간의 협동학습 (collaborative learning) 또는 블랜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등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실험적 검증도 이루어졌다 (김혜경, 2016; 박은영, 2016; 변지현, 2017).

표 3

대학영어 관련문헌 년 도별 발표 건수와 연구주제별 분류

연구주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
교수법						2	3	2	3	10(28.57%)
교육과정	1	2	1	1	2	1	2	4		14(40%)
평가				1	1					2(5.71%)
학습자변인							1	5	3	9(25.71%)
총합계	1	2	1	2	3	3	6	11	6	35 (100%)

최근 교양 영어 학습 시, 학습자들의 태도, 즉 학습 동기화 및 탈동기화에 대한 연구와 (김남희, & 정미애, 2017; 정미애, & 김남희, 2017)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전략에 대한 연구 (김율이, 최문홍, 2018; 은호윤, 2018)들이 진행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대학 영어 선행 연구들은 교육과정 분석 및 실태 영역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 교수법 및 학습자 태도 및 인식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학습자의 태도 및 요구사항이 교양영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3) 고교영어와 대학영어 관련문헌의 비교 및 내용분석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최근 2018년까지 대학영어에 관련된 국내문헌들과 고교 영어에 관련된 문헌들을 연구 주제별대로 분류하였다. 이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주제 세부영역이 비슷하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고교영어 관련 연구주제는 교수법 (34.2%), 교육과정 (25 %), 평가 (19%), 학습자 변인 (12.5%) 그리고 교재개발 (9%)이며, 대학영어 관련 연구주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교육과정 (40%), 학습자 변인 (25.71%), 교수법 (25.57%) 그리고 평가 (5.71%)이다. 특히, 세부영역 중 교육과정 분석 및 실태연구와 교수법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주요하다. 교수법과 학습자 변인도 중요하지만, 현 고교영어와 대학영어에서 영어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연구가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교 영어

문헌 연구 결과와 달리, 대학교 내에서 교양영어 교재 개발에 관련된 연구가 미흡하다.

그림 1

고교 영어 연구 주제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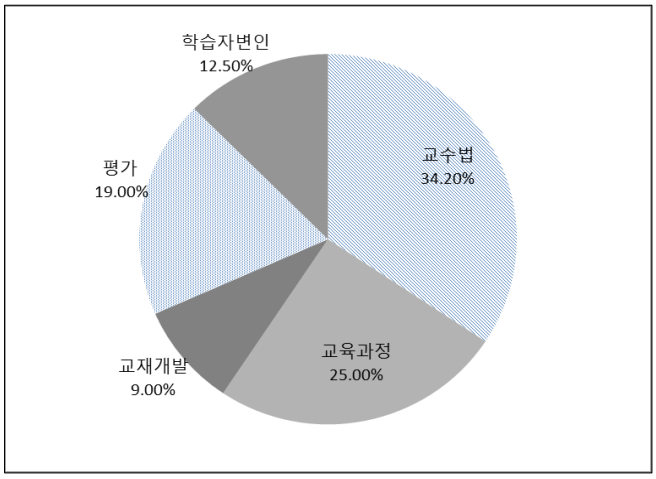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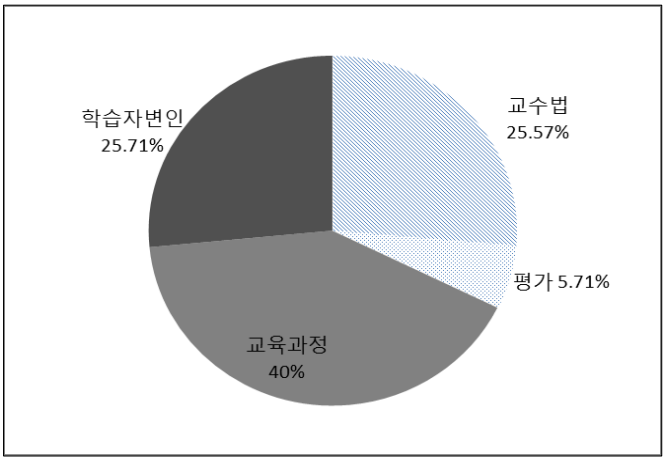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영어 연구 주제별 분류



둘째, 고교영어와 대학영어 관련 문헌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영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가지 언어영역의 고른 함양이 필요하다. 고교 영어 문헌 연구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반면, 대학 영어 문헌 연구에서는 대부분 읽기 관련 언어 영역에 집중된 연구가 다수이다. 게다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현장에서는, 영어의 네 가지 언어 영역 중 말하기 능력 함양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김성혜와 임자연 (2013)은 전국 36개 대학 교양영어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대학 교양영어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언어영역은 말하기 기능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읽기, 듣기, 쓰기 영역 순이었다. 또한, 고교 영어 교육정책에 따라, 영어 의사소통중심능력 함양이 강조되면서, 네 가지 언어 영역 중 말하기 영역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고등학교와 대학교내에서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말하기 영역뿐만 아니라, 네 가지 언어영역이 고르게 함양되어야 하며, 보다 나은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통합적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진화 (2012)와 양현권 (2011)의 기존 연구에서 보듯이, 실제 대학의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와 읽기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통합적 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고명희, 2010, 양현권, 2011, 권선희, 2012). 특히 학생들은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에 관심과 학습필요성을 느끼며, 이들 영역에 대한 능력이 자신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통합적 영어프로그램의 개선책으로 구체적인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영어교과목 개발 및 강의안 제시가 필요하다(이연숙, 2014).

비슷하게, 고교 영어관련 교육과정 연구는 2011년에 시행된 영어 교육 정책에 (영어 말하기·쓰기 수행평가, 2011년 영어과 개정 교육과정, 수능 영어 수준별 A·B형 시험, 영어 교과교실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대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학생들의 이해 정도와 태도, 그리고 교사의 반영여부 및 준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지선, 장경숙, 박재은, & 백인환, 2012; 박태준, 2016; 장윤상, & 조용해, 2011). 예컨대, 박태준 (2016)은 설문지를 통한 교사들의 영어 교과 수행평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행평가 시, 영어 말하기, 듣기, 읽기, 그리고 쓰기 네 가지 언어영역을 고른 비중을 두지 않았다. 특히, 전체 응답 영어교사들 중 45.15%의 영어교사들이 말하기 평가가 가장 적은 비율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영어 교과 수행평가 시, 네 가지 언어기능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 고르게 함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고교 영어와 대학 영어 관련 국내 문헌연구에서 보듯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의사소통중심 역량 강화를 위한 영어의 네 가지 영역을 고르게 함양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내에서 각각 다양한 교수법 및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연속성으로, 고교와 대학 영어교육과정 연계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Text-mining 프로그램을 통한 내용분석

본 장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내용분석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 text-mining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대상 문헌의 영어 논문초록에서 높은 빈도의 단어 및 표현들을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고교 영어와 대학영어 관련 문헌연구 대상들의 영문 초록의 기본정보분석은 표 4에서 보듯이, 고교 영어의 경우 총 단어 수 4632이며, 총 문장 수는 518이며, 대학 영어의 경우 4255이며, 총 문장 수는 431이다.

표 4
영어논문초록의 총 단어와 문장 수

분류	고교 영어	대학 영어
영어논문초록 수	32	35
총 단어 수	4632	4255
총 문장 수	518	431

이를 바탕으로, 영어논문초록에서 최다 빈출 10개의 단어들을 각각 도출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교영어 관련 영어논문초록에서 최다 빈출 10개의 단어 빈도 비율은 다음과 같다: English (5.1%), high (2.8%), school (2,1%), students (2%), study (1.7%), reading (1.7%), teachers (1.2%), assessment (0,9%), activities (0.9%), learning (0.9%). 이러한 분류에서 나타나듯이, 고교영어 관련 문헌 연구들은 읽기(reading), 교사 (teachers) 및 평가 (assessment)에 관련된 관심이 주요하다. 특히, 네 가지 언어기능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중에서 읽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이는 현장에서 다른 언어 기능에 비해 읽기 기능 영역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
영어논문초록 최다 빈출 10개의 단어 비율

고교영어			대학영어		
단어	발생 수	비율(%)	단어	발생 수	비율 (%)
English	237	5.10%	English	229	5.40%
high	129	2.80%	students	93	2.20%
school	95	2.10%	college	90	2.10%
students	91	2%	learning	90	2.10%
study	80	1.70%	study	64	1.50%
reading	78	1.70%	reading	54	1.30%

teachers	56	1.20%	education	51	1.20%
assessment	44	0.90%	university	50	1.20%
activities	43	0.90%	language	36	0.80%
learning	40	0.90%	learners	32	0.80%

대학영어 관련 영어 논문 초록에서 최다 빈출 10개의 단어 빈도 비율은 다음과 같다: English (5.4%), students (2.2%), college (2.1%), learning (2,1%), study (1.5%), reading (1,3%), education (1.2%), university (1.2%), language (0.8%), learners (0.8%). 대학영어 관련 문헌 연구들도 학습 (learning) 및 읽기 (reading) 에 관련된 연구가 주요하다. 고교영어관련 결과와 비슷하게, 네 가지 언어기능 중에서 읽기가 가장 많이 언급 되었다. 이는 대학교에서도 읽기 기능영역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이거나, 관심이 크다 할 수 있다.

정확한 내용분석을 위해, 두 단어 이상의 최다 빈출 표현 (두 단어이상으로 구성된 뭉치) 빈도비율은 다음과 같다.[6]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교영어의 경우, speaking and writing (1.4%), English teacher (0.3%) 그리고 performance assessment (0.3%)의 빈도비율이 높은 반면, 대학영어의 경우 English learning (0.4%), self-efficacy (0.2%), English reading (0.2%)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고교 영어와 대학 영어간의 세부적 연구 영역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예컨대, 고교 영어관련 문헌들은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말하기 및 쓰기 영역 (speaking and writing), 교사연수 (English teachers), 그리고 수행 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에 큰 관심이 있지만, 대학 영어관련 문헌들은 영어 읽기 (reading) 기능 및 교수학습 (English learning) 관련 연구들이 주요하다.

표 6

영어논문초록 최다 빈출 표현 (두 단어 이상) 비율

고교 영어			대학영어		
표현	빈도수	비율	표현	빈도수	비율
high school	125	2.60%	college English	47	0.70%
speaking and writing	64	1.40%	English education	33	0.50%
English education	52	1.10%	English learning	28	0.40%
school students	25	0.30%	college English education	18	0.30%
English teacher	20	0.30%	self efficacy	14	0.20%
performance assessment	19	0.30%	English reading	14	0.20%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12	0.20%	General English	12	0.20%

[6] English education, college English, high school 등과 같은 표현들은 빈도비율이 높지만, 본 연구의 분석 목적과는 적절하지 않기에, 논의과정에서 제외하였다.

3.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및 앞으로 시행될 고교 영어와 대학 영어 교육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연구결과 1의 전문가의 선험적 내용분석의 결과 그림 1, 2의 내용에서 제시하는 것은 고교와 대학의 영어교육에 대한 연구논문들은 연구주제가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 학습자 변인에 대한 연구가 공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대학의 경우 교재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강주란과 김해동(2016)과 한정원(2003) 등의 연구에서 같이 고교 영어의 교과서, 즉 수업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의사소통역량 중심의 고교 내 교육과정에서 말하기와 쓰기 역량이 중요시 되고 있는 반면, 대학 교양 영어 교육과정에서는 읽기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 주제분류와 내용분석에서 대학의 읽기 중심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반면, 고교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수행평가, 교재, 말하기 쓰기에 대한 연구주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Text-mining을 통한 내용분석 결과에서 고교영어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 주제가 제시되어 있고, 대학영어에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제시되어 있다. 요컨대, 고교-대학 영어교육관련 문헌의 연구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된 고교-대학 영어교육과정간에 격차가 있음을 밝혀냈다. 주목해야 할 점은, 고등학교 교시내에서 영어교육 시 표현기능 -말하기와 쓰기-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면, 대학교 교양영어교육과정에서는 이해기능- 읽기영역-의 함양에 관심이 크다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에서 전공수업 수강 시, 전공관련 영어교과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기에 읽기 능력의 향상에 관심을 두었다 할 수 있다.

교육부 (2015b) 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하면 창의융합적 인재의 양성을 목표로,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초기의 단계이지기는 하지만, 이번부터 대학에서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영어교육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학습자의 자기효능감, 팀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정보처리 역량강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고교, 대학의 영어교육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고교와 대학의 영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고교 영어학습자의 탈동기화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어학습에 대한 만족도 연구를 살펴보면, 입시위주, 문법 번역식 위주의 영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이는 학습자의 탈동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김남희, & 정미애, 2017; 정미애, & 김남희, 2017). 반면에 이러한 탈동기화는 대학영어교육에 대한 기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김성혜와 임자연

(2013), 김성중과 정은(2016), 그리고 하명애 (2018) 등의 연구에서 교양영어에 대한 대학 신입생의 기대, 만족도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교영어교육과 대학영어교육의 차이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영어교육방안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V. 결론

한국의 EFL 학습자들 대상으로 고교 영어 교육과 대학 영어교육 과정의 차이를 감소하고, 지속적인 영어교육과정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에 따라, 먼저 관련된 문헌을 수집 후, 연구주제를 분야별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고교 영어와 대학 영어 관련 선행 연구 분석에서 보듯이, EFL 학습자들의 목표수준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검증 및 현행 교육과정의 실태 분석에 공통된 관심을 보였다. 고교 영어 관련 문헌 연구에서는 좀 더 평가에 큰 관심을 보이는 반면, 대학 영어 관련 문헌 연구에서는 학습자 요구사항 및 만족도에 좀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물론 약간의 세부영역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교와 대학 영어 관련 문헌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수법, 교육과정, 학습자 변인, 평가를 주요하게 연구하였다. 한 가지 주지할 점은, 대학교에서는 교양영어를 위한 교재개발이 미흡한 반면, 고교 영어 교육에서는 교재개발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좀 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text-mining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고교 영어 교육과 대학 영어 교육관련 문헌연구에서 중요시 하는 네 가지 언어 기능 영역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고교 영어 교육에서는 말하기와 쓰기 언어 영역에 관련된 연구가 다수인 반면, 대학 교양 영어 교육에서는 읽기 언어기능 영역에 관련된 연구가 주요하다. 주목할 점은, 대학 교양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 및 요구 조사에 의하면, 학습자들의 진로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쓰기 언어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교 영어와 대학 영어 교육에 관련된 문헌연구 연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영어 교육 과정의 연계성 결여에 주목해야 한다. 고등학교 영어교과과정에서 표현기능에 중점을 둔 반면에 대학교 교양영어육과정에서는 이해기능에 중점을 두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네 가지 언어영역을 균형적으로 함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어를 이해 (읽기, 듣기)하고 표현 (말하기, 쓰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고교와 대학의 영어교육 연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에, 고교와 대학의 영어교육을 연계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학교육협의회 (http://up.kcue.or.kr/) 2012년부터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고정을 통해 선택된 교과목에 대한 표준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영어와 관련

된 교과목으로는 영작문 과목이 전국의 각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학선수 이수제 영작문 과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우수한 고등학생들의 잠재적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고교와 연계를 위해서는 고교 영어교육과정의 가장 높은 수준인 ‘심화영어독해와 작문’ 과정을, 현재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양영어교육과정과 전공영어교육과정의 연계를 위해서는 영어전공기초과목인 ‘영어학입문’, ‘영문학 입문’ 교과목보다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목적이면서, 대학의 전공과목 이수를 준비하기 위한 ‘영작문’ 과정을 제안하였다(성명희 외, 2011, pp. 152-153).”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고교와 대학 영어교육 실태의 격차를 더욱더 감소시켜 우수한 고등학생들의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일관성 있게, 균등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더 나은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교, 대학의 연계는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4개의 언어기능이 통합적으로 적용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개정교육과정과 대학의 역량중심 교과목 운영의 현실을 반영한 역량기반 평가가 병행되는 교과목의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주란, 김해동. (2016).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시각 자료와 학습자 반응 분석, *현대영어교육, 17*(1), 159-181.

고명희. (2010). 대학실용영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 *외국어 교육, 17*(1), 337-359.

교육부. (2015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 2015-74호(별책 1).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5b). *영어과 교육과정*. 고시 제 2015-74호(별책 14).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학교*. 세종: 교육부.

김남희, 정미애. (2017). 대학신입생 영어학습 경험과 대학영어 읽기 수업 분석: C대학교 대학영어사례연구. *언어연구, 32*(1), 1-23.

김성중, 정은. (2016). 대학영어교육 설계를 위한 요구분석. *언어학연구, 39*, 67-90.

김성혜, 임자연 (2013). 대학교양영어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현대영어교육 14*(2), 263-290.

김소연, 윤지환, 이문복. (2017). 인터넷 기반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지원 시스템 고등학교 적용 사례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3), 183-205.

김율이, 최문홍. (2018). 한국 대학생의 영어 읽기 전략에 대한 인식과 실제

사용 비교. *언어학, 26*(1), 97-117.
김혜경. (2016). 소집단 협동학습을 통한 교양영어 독해수업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0*(4), 209-236.
권선희. (2012). 대학 교양영어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교육과정 구성 및 학습자 인식도 분석을 중심으로. *영어어문교육, 18*(4), 211-235
박은영. (2016). 대학영어수업에서 동료평가와 교수자 평가와의 상관관계 및 학습자 반응. *신학과 세계, 82*, 203-238.
박지선, 장경숙, 박재은, 백인환. (2012). 영어교육 정책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인식. *영어교육, 67*(2), 367-391.
박태준. (2016). 고등학교 영어과 수행평가 현황 및 인식조사 연구. *중등영어교육, 9*(3), 77-98.
변지현. (2017). 소규모 영어 읽기 협력 학습에 대한 대학생 학습자 인식. *현대영어영문학, 61*(4), 145-166.
성명희, 현태덕, 이지연, 장형지, 진경애. (2011). *대학과목선이수제 표준교육과정개발-영어* (RR-2011-6-353호).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성명희, 현태덕, 이지연, 장형지. (2011). 대학 영어 선이수를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방향 제안. *현대영어교육, 12*(2), 140-157.
송대연. (2007). 고등학교영어수행평가 영역 및 평가방법분석. *영어교육연구, 34*, 95-124.
양현권. (2011). 대학 영어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4*, 136-158.
윤영선. (2013).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영어과 서답형 평가 문항 비교 분석. *중등영어교육, 7*(1), 31-56.
윤찬미, 이진화.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중, 고등학교 영어 교사의 인식 연구. *중등영어교육, 11*(3), 25-47.
은호윤. (2018). 한국 대학생들이 영어읽기수업에서 사용하는 영어학습전략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연구. *언어학, 26*(1), 221-240.
이문복, 주헌우. (2017). 온라인 기반 고등학교 영어 말하기 수행평가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시범적용.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0*(1), 167-185.
이연숙. (2014). 대학 영어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과 앞으로의 연구방향. *언어과학연구, 70*, 353-384.
이예식, 임홍미. (2005). 교양영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중등교육연구, 53*(3), 257-276.
이진화. (2012). 한국대학영어교육 프로그램 분석: 미국대학 ESL 및 외국어 프로그램과 비교. *외국어교육, 19*(4), 245-269.
장윤상, 조용해. (2011). 학생들의 관점에서 본 제7차 인문계 고등학교 영어교육과정 목표 실행에 관한 진단과 발전방안연구. *영어학, 11*(4), 927-961.

정남숙. (2017). 대학생 영어 쓰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모바일 학습의 효과.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0*(2), 84-113.

정미애, 김남희. (2017). 대학생의 영어 학습 신념과 영어 학습 동기 및 태도의 관계 분석. *언어연구, 33*(1), 145-172.

정부일, 현병환 (2018).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성공요인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1), 79-90.

하명애. (2014). 대학 교양영어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언어연구, 33*(3), 453-475.

하명애. (2018).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사전경험과 대학영어교육의 학습기대에 대한 고찰. *새한영어영문학, 60*(3), 2017-228.

한정원. (2003).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소집단 활동 비교 분석. *영어교육, 58*(4), 43-59.

한혜정, 전효선, 정혜선, 윤혜정, 이재영, 이재정, 이충란, 이현옥, 조소영.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보건 평가기준 개발 연구* (CRC-2016-2-1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최영은, 김경한. (2012). 고등학교 영어 이야기 글 평가 문항 개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7*(2), 315-336.

Yang, A., & Lau, L. (2003). Student attitudes to the learning of English at 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System, 31*, 107-123.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Tertiary

이온순
동아대학교 기초교양대학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Email:oslee@dau.ac.kr

박지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북 진천군 교학로 8
Email:jspark@kice.re.kr

장형지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지 70
Email: maira5576@hanmail.net

Received in October 16th, 2018
Reviewed in November 27th,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8